

교회목표

신앙에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및 어린이·아버지주일(가록연합예배 2·3부)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육체로는 감히 만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고(요 1:29)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막 16:19) 그곳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요 15:26) 성령님은 보혜사(요 14:26)이시며 우리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갈 5:22) 성령으로 사는 신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신자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 성령님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어린이·아버지주일과 함께 되새기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는 매우 큼니다. 여는 주일과 예배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참 신자의 첫걸음을 내딛는 성령강림주일 및 어린이·아버지주일 되길 바랍니다.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예배

*내일(12일), 위임목사님의 필요초빙기도회! 마가복음 강해 시작(매주 월요일 04:45)

성령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거듭난 시리즈

거듭난 니고데모

- | | | |
|--------------|------------------------|-------------------|
| 1. 바리새인 니고데모 | 5. 돌과 바람 | 9. 죽음인가, 생명인가 |
| 2. 혼란과 공허함 | 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 10. 믿지 않는(불신앙의) 죄 |
| 3. 거듭남 | 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 11. 정의 |
| 4. 거듭남의 증거 | 8. 믿는 자는 누구냐! | |

예수님과 만난(요 3장) 후에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니고데모의 이름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언급되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2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니고데모는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변화가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하속들을 보냈다.(요 7:45, 48) 그때에 그들 중의 하나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우리 율법은 먼저 들어보거나 그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요 7:51)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러한 말을 한 그 시기는 참으로 적절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았다.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이다. 요한복음 3장의 일이 있는 지 3년이 흘렀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에 일찍이 밤에 예수께 나아왔던 자라고 하였다. 이제 니고데모는 어둠을 지나 빛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요 19:38 ; 막 27:57-58)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니고데모는 믿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에서도 승리를 거두셨다. 니고데모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복음을 대할 때에 한 영혼 안에 일어나는 그 시적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비밀리에 찾는 자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도 보여준다. 또한 믿는 자들의 성격이 다르고 특이한가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빛 가운데로 뛰어들어 지체 없이 십자가를 받든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대담하게 고백하였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 믿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는 그 빛을 만방에 밝히는 자들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안인들이 많이 있다. 또 좀 더 긴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왕상 17:23-24)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탐욕을 끝냈고 믿는 자로 거듭났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특별한 역사이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공통점이 있다.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다 다르고 죄를 깨닫는 회개의 정도와 그 차이도 다양하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경험이 다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험이 다르고, 디모데와 루디아가 각각 다르다.(행 9:1-2)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경험도 매우 극적이었다.(행 9:4-5, 20-22) 빌립보의 간수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전혀 없던 자였다.(행 16:23-24)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었다.(행 16:27-31) 빌립보의 간수와는 달리 루디아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다.(행 16:14-15) 극적인 체험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조용하게 열어 주셨다. 디모데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딤후 1:5, 3:14-15)

이 네 사람의 경우와 니고데모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나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눅 15:17-19) 먼저 자신의 비참한 참 모습을 깨닫고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행 2:38)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행 16:31 ; 요 1:12)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는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영적 진리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마음에 두고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마 7:7-8) 아멘.



WHAT KIND OF CHURCH BEGAN AT PENTECOST?

⁽³¹⁾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³²⁾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³³⁾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 ⁽³⁴⁾For there was not a needy person among them, for all who were owners of land or houses would sell them and bring the proceeds of the sales ⁽³⁵⁾and lay them at the apostles' feet; and they would be distributed to each as any had need. (Acts 4:31-35)

It can be said with certainty that the primitive church had distinctive marks of identification. Today's Bible verses highlight several key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attributes of all churches. Let us look at these important features and recognize their need in fulfilling God's purpose for His church. For right now, churches the world over are fading away from their calling. Their key characteristics are changing and their spiritual power is turning off.

The church that started at Pentecost was a praying church. When they prayed things started happening,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v. 31) As they prayed, crowding out their own opinions, they received an answer. Jesus taught them that they could not go forward on their own power, and with their own mind and will. He told them,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3-14) Their prayers had tremendous effects.

The church that started at Pentecost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v. 31) As humans, we are filled with various emotions that are short lived. We can be feeling on top of the world and happy one minute and at the very next moment be sad and upset.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is different,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1Cor. 6:19)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makes believers God's people. It is everlasting!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when God comes into your heart, you have great power. The first churc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cause they prayed in one accord. Their hearts were as one. Paul told the Corinthian church, "Now I exhort you, brethren,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ou all agree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made complete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1Cor. 1:10)

The church that started at Pentecost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v. 31) The purpose of the Holy Spirit is to edify, encourage, and equip believers with the power to live and proclaim the gospel. Jesus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Peter and John were fishermen, not professional scholars, but when they preached people recognized their power, "Now as they observed the confidence of Peter and John and understood that they were uneducated and untrained men, they were amazed, and began to recognize them as having been with Jesus." (Acts 4:13) Even when severe persecution came to the primitive church, and many of its members had to scatter to other lands, the Bible tells us,

"Therefore,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 (Acts 8:4)

The church that started at Pentecost was a church of generosity,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For there was not a needy person among them, for all who were owners of land or houses would sell them and bring the proceeds of the sales and lay them at the apostles' feet, and they would be distributed to each as any had need." (vv. 32,34-35) As Koreans, we come together so strongly, yet still this is an impossible thing for us. Indeed, it is not an easy thing to do, especially for the Jewish people of that day, but they did it. When a devout young man came to Jesus asking about how he could receive eternal life, Jesus said to him, "If you wish to be complete, go and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Mt. 19:21) This young man practiced God's commandments, but could not practice all of God's commandments. The primitive church was "storing up for themselves the treasure of a good foundation for the future, so that they may take hold of that which is life indeed." (1Tim. 6:19)

The church that started at Pentecost was a church of grace, "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 (v. 33) Grace is a gift of God, not something anyone can obtain through their own efforts. The primitive church had thanksgiving. They appreciated their eternal lives and citizenship in heaven. They knew what it meant to have their sins forgiven. Everything that they had considered their own individually became unimportant. Living for God and by God became paramount. Paul wrote to the Roman church, "For through the grace given to me I say to everyone among you not to think more highly of himself than he ought to think; but to think so as to have sound judgment, as God has allotted to each a measure of faith. For just as we have many members in one body and all the members do not have the same function, so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in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ne of another." (Rom. 12:3-5)

My dear friend, Jesus asks us to be His witnesses. He wants to build His church here at Choong Hyun. Therefore, we must manifes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that started at Pentecost! Are we a praying church? Are w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re we preaching God's word with boldness? Are we generous? Are we truly a church of grace? I hope you are ready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because this congregation needs to turn on their spiritual power and move toward its purpose. Amen. 

다음 주일 설교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³¹⁾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³²⁾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³⁴⁾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³⁵⁾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31~35)



김성완 목사

초대 교회는 그 정체성을 구별하여 주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특징들은 변질되고 영적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31절) 자신들의 의견을 버리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힘과 생각, 의지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31절) 인간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한 순간 행복해하다가도 곧 슬픔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청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복음을 증거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31절) 성령의 목적은 신자들을 감화시키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학자가 아닌 어부였지만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13)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수

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 8:4)

서로 통용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32,34~35절) 한국인들은 결속력이 무척 강한 편이지만 아직도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9:21)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초대 교회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교회였습니다. (딤후 6:19)

은혜로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33절) 은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골렘을 받는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3~5)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천교회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서로 통용합니까? 진실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성령충만한 가운데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6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사도행전 12:5)

베드로를 감금한 헤롯의 목지. 헤롯 왕의 야심은 유망해졌다는 것이었다.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동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베드로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원했다. 따라서 베드로의 죽음은 헤롯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다. 베드로의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심각했으며 위험했다. 바로 이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헤롯의 첩보활동은 감옥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방방곡곡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때야말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기에 완벽한 기회였다. 헤롯은 자신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네 명의 병사들이 6시간씩 돌아가며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16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였다. 두 명의 병사는 베드로와 최사슬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두 명의 병사는 베드로 곁에 서서 감시했다. 이는 베드로의 탈출을 막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는 천사가 옥문을 열어 주어 기적적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행 5:19) 유대인들과 헤롯은 다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원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자들에게 청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다는 보고에 기뻐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하셨던 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전에 오손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였던 일과 똑같은 것을 알았다.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행 11:18)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

진심의 기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였다. 그들은 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깊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신실한 것이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이 상황에서 어찌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

탁월한 선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의 선택은 기도였다. 이것은 매우 어려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맞았다. 후에 앞에 서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았다. 이때 그들이 한 것은 기도를 했다. 사자굴의 다니엘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도 기도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선택했고 간절히 기도했다. 습관적으로 하는 외식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주님께 교회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능은 역사한다. 기도는 모든 직물을 향한 최고의 무기이다.(빌 4:6~7; 막 9:29)

놀라운 일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는 매우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여종 로데는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 주는 것도 잊고 그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안에 있다고 모두에게 알렸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다.(행 12:15) 그들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다.

지금 즉시, 기도하라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다면, 마치 베드로처럼 사슬에 묶여 내일이면 다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기라도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시! 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교회는 그저 종교적 예식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찬송과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증거가 아닌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자. 아멘.

김성관 원임목사

마가복음 강해 22

* 매우 중요! 새벽기도(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석 (4:13~20)

우선 하나의 씨가 길 가에 떨어졌다.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막 4:15) 길 가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행 28:27)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며 연구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에 관심을 갖는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뿐이다.(엡 4:19) 반면에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우리보다 말씀에 더 관심을 갖는다. 말씀의 능력을 사탄은 진실로 믿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경고한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일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로 2:5)

다른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막 4:16~17) 돌밭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다. 그러나 여전히 그 뿌리는 세상의 것들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가장 악한 부분을 집중 공격한다. 그래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박해 앞에서 곧바로 넘어진다.(눅 6:49)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 믿음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자주 뒤돌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눅 9:62)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질문을 던진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이 아닌 바 되었기를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갈 4:9)

또 다른 씨가 가시밭기에 떨어졌다. "또 어떤 이는 가시밭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막 4:18~19) 가시밭기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믿고 잘 따른다. 신앙이 조금씩 성장한다. 그러나 염려, 유혹,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는 맺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보다 '세상'을 선택한다.(딤후 6:9~10)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눅 12:19~20)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사탄이 놓은 덫에 걸려서는 안 될 것이다.(눅 21:34) 우리의 참된 관심은 영원히 있어야 한다.(마 6:25)

이제 또 다른 씨는 각각 30배 땅, 60배 땅, 100배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심심 배나 욕심 배나 백의 결실을 하는 자라니"(막 4:20)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좋은 땅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는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바로 이 삶에 빛의 열매(엡 5:9), 의의 열매(빌 1:11)는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어떤 행위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다. "또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을 지음 같이"(산 20:43) 생명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가? 그렇다면 믿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자. 악한 믿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종교인들의 범죄를 반복하지 말자.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외면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법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골 1:10)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은총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총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요 1:12)

신분고하는 물론이고 나이의 많고 적음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데는 상관이 없다.

천국에는 오직 어린 아이같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눅 18:16)

나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빌 3:20) 여기에 있다.

♥ 예수님이 진짜로 좋아요. (최민서, 유아부)

♥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도 예수님이 좋아요. (이다을, 유아부)

♥ 찬송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최민준, 유아부)

♥ 교회에 오면 선생님님이 좋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좋아요. (오승욱, 유치부)

♥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마귀의 나쁜 마음을 없게 해 주세요. (김솔아, 유치부)

♥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어요. (도기유, 유치부)

♥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이서연, 유년부)

♥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예찬, 유년부)

♥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항상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예지, 초등부)

♥ 교회에 오면 신나는 율동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최민영, 초등부)



♥ 예수님은 제 마음에 들어와 "용기를 내라. 한술아 ~"라고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김만솔, 초등부)

♥ 교회에 오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님이 있어서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주셨어요. (김미유, 초등부)

♥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김예림, 초등부)



♥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고 이예매 주시는 분이세요. (홍자경, 초등부)



♥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좋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문준혁, 소년부)



♥ 주일에 장년 4부에 오면 귀한 말씀도 듣고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고 은혜가 증만해져서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순영 집사, 장년 4부)

♥ 구교모임이 끝나고 찬양예배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데 장년 4부가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에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찌했을 까를 생각해 봅니다. 살이 지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황이지 집사, 장년 4부)

♥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마음에 평안해지고 말씀이 좋아 자꾸만 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에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창의 성도, 소년부)

♥ 주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옥희 은퇴교사, 소년부)



예수님을 달아가는 유아부



정태동(장로, 유아부장)

유아부는 4~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절의 교육은 아이들의 성정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는 이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유아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복음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일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말씀도 배우고 찬양과 율동도 하면서 신앙의 씨앗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연속도 하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화되어 갑니다.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으며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대도 매주일 찬송을 하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싶으면 직접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박자와 음정을 초월하여 아주 자유스럽게 부릅니다. 유아부 어린이들의 특징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의사표시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을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올해의 유아부 교육주제는 “단대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제말씀은 “두려워 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입니다. 예배는 11시에 시작하지만 15분 전에 예배 전 찬양을 합니다. 보통 11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어 12시까지 2부 행사와 놀이지도 및 반별친교와 성경공부를 합니다. 12시 무렵이 되면 예배를 마친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탁아부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옵니다. 이때에 유아부실인 제1교육관 201호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유아부 선생님들은 항상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마 21:1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유아부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눅 2:40) 할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 예수 대문 밖에

컬럼비 믿음. 고2 때의 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 좋은 사람” 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내 마음을 꼭꼭 담아두었던 나는 중학교 마지막 여름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완강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주 느릿느릿 목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를 들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나와 함께 내 짐을 지신다는 그 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난 처음으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내려놓았다.

고등학교 올라온 후에 예쁜 오케스트라에 들어와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났고, 예쁜 찬양대가 언제나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매우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영적인 찬양을 드리라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쁜 찬양대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기엔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르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선배가 되고 임원이 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내가 임원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선배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 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스트레스가 되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찬양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내 알뜰한 믿음만을 내세우고 있던 결과였다. 어쩌나 한심하단지.....

그때 내 마음과와는 다른 찬송이 바로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였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있으니 단단히 잡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처라.” 딱 그때의 내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내 모습이 적혀 있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알맹이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말씀을 읽으려고 하였고, 일부러 기도회 준비까지 하며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이지 정직 찬양을 드리기를 사모했다.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차오르는, 그전에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찬양. 내가 방황할 때 나를 바로 잡아주었던 그 찬양. 이제는 내게 힘주고, 고달픔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찬송들! 이런 찬송을 내게 주심으로 날 이끌어주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언제나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하되, 단단.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사역자에 도착했다. 예상과는 달리 복음을 전했던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들을 진심으로 환대하였다. 또한 운전기사까지 신실한 동역자의 역할까지 해 주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했던 한 마을 주민의 신고로 우리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이었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경찰은 물증을 찾기 위해 우리들을 가는 곳마다 감시하였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추궁했고, 마을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일부러 접근시키기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나오는 학교 앞이나 마을을 지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 황금밭과 일꾼을 두루고 추수하지 못해 괴로웠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전도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며 사역지를 떠나야 했다. 적은 세력을 뿌려 나심에 있는 우리에게 운전기사는 예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청했다.

마지막 날에 운전기사가 우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가보니, 장애가 심한 누나가 우리를 기다린 듯이 기어와 나와 우리의 같이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 가정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후원반은 우리보다 더 담대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던 운전기사는, 그는 경찰들이 위협할 때 자신의 생애에 대해 어려움을 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였다. 그때 경찰들의 감시에 근심하고 있던 우리들은 몹시 부끄러웠다.

우리를 환대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자, 반신반의했던 자, 거부했던 자, 우리를 괴롭혔던 경찰들조차 주께서 사행하시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쨌든 말로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주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락하시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달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께 고백하길 이 믿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전하지 못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선교였다.

박귀국(집사, 2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9일(금)~5월 16일(금)	4교구 2지역	문영귀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6지역	한윤택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3지역	정길남



할렐루야! 총현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신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새가족등록식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새가족등록식에 가득한 보람을 느껴보자.

새가족등록식은?

새가족등록식은 본당 로비 오픈홀에 위치하고 있으며 14명의 교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등록 시간은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예배가 있는 수요일, 1, 2부 예배 전 - 후와 금요일오전까지 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준현 장로, 부장)

매주 약 40여명 정도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등록당첨 교사는 교회의 일꾼들은 늘 기약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권사, 부장)

등록당첨 교사는 무엇보다도 등록하는 새가족에게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제시하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김필자 전도사, 부지도)

새가족등록식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

새가족에게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가족담당부서 양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맞는 교회학교에 참석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주고, 새가족에게 해당되는 교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홍영희 권사)

새가족양육부에 참석하지 못하는 새가족은 성경공부시 양육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통신교육을 받는 새가족에게도 담당 교사를 두어 전화상담을 통해 교회출석과 성경공부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현자 권사)

외국인교리자들이 등록할 때에는 우선서부 안내하고 평소에는 우편물 통신, 주소출력 등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집사) 등록하는 짧은 시간에도 신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으시는 새가족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보이는 새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박희진 권사)



봉사이면서 누리는 은혜는?

주간성경공부에 정성껏 답을 주고 책을 갖거나 메모를 하며 금감한 것을 적어서 물어보았을 때와 성경공부를 끝까지 잘 마친 후 학습세를 받았다고 진심으로 써 온 새가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인숙 집사) 진리의 참 복음을 찾아 주님의 참된 교인과 친구의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영광스런 하늘나라를 꿈꾸며 구원의 보람을 느낍니다. 또 새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되어 다른 새가족을 데려와 등록시키면 영광 예쁜 새가족이 기억납니다. (이영숙 집사)

먼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등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노라'(롬 10:10)는 말씀처럼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강 옥 집사) 사업이 부도가 나서 죽으려고 죽을 틈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운전사가 교회에 가자 하므로 멀리 갈 수 없다는 말에 귀가 뻗듯 죽어 죽기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찾아오신 남담소가 제일 기억납니다. (이인숙 권사)

어떤 권사님이 정신장애인 새가족을 매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보

살며 새가족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신앙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후 흐르는 눈물을 주께할 수 없어 등하하는 내내 간절으로 눈물을 탄던 새가족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김영은 권사)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신 성도님들께!

새가족을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영숙 집사)

선교로 인해 등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등록만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강 옥 집사)

신앙인 예배의 모습에 보며 주위 위해서도 예배 시작 15분 전에 등록을 하고 주어진 감사제사를 드린다. 또, 무엇보다 새가족을 인도하는 일이 우선임을 깨닫고 인도의 봉사는 새가족적 적용할 때까지 좀 미뤄 두신도 필요합니다. (김영은 권사)

등록 취소된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보면 안타깝게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세희 집사)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전도에 열심인 만큼 새가족의 교회정착에 더 많은 지도와 사랑의 양육을 당부합니다. (김종현 집사)

교구나 교회학교에서 새가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새가족을 실제로 전도한 사람이 성경을 데리고 오고, 인도자한테도 정직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준현 장로)

새가족등록식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새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와서 물어보아도 그들은 대환영이다. 돌아온 탐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아버지가 그들 보고 죽은이 여러 달려가 목을 안고 일을 맞추니"(눅 15:20)

(편집국)

새가족양육부 4월 수료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어느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하여 죄 사함을 받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참된 회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기쁨이 달라졌습니다. (김미라)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권유로 총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부를 가리지 않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의심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임미자)

산배 언니의 전도로 총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그러우시고 매순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서로 대화할 때면 예수님은 그 고신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임정란)

결혼 전 시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사랑과 구원의 통로입니다. 누구에게도 욕은 내 자신에게 내린 마음을 먹었던 것을 어딘가에 말할 수 없어 마음이 답답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연영)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안복록)

지난 해 10월 어느 주일에 총현교회 옆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우연히 어떤 권사님을 만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에 감싸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염정성)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76	배준호	15	청년1부	윤여민(22)	807	김지혜	19	고등부	김영준(22)
777	최도근	11	청년1부	문진숙(18)	808	김승현	19	중등1부	정영태(22)
778	정현정	23	청년2부	지규성(16)	809	이정민	19	중등2부	지영준(22)
779	김형호	24	대학부	이주영(20)	810	최진형	21	청년2부	정영태(21)
780	이민진	20	대학부	이주영(20)	811	조희수	18	청년1부	이영준(21)
781	김영남	6	청년2부	박윤석(18)	812	이영진	20	청년2부	이영준(20)
782	최은희	6	청년2부	박윤석(18)	813	서정원	18	중등3부	양영태(20)
783	정은혜	19	청년부	박윤석(18)	814	박성훈	19	중등2부	김영준(22)
784	박현희	9	고등부	임지희(17)	815	박지혜	19	사랑부	김성태(17)
786	이연경	12	청년2부	정순이(11)	816	소지영	17	청년2부	김지희(17)
786	박수정	9	청년2부	김대성(18)	817	마진영	1	고등부	윤진희(1)
787	황종민	2	청년1부		818	이정애	6	청년1부	구영태(2)
788	한 민	13	청년1부	김은영(18)	819	오동태	6	청년3부	서인숙(14)
789	김예슬	19	고등부	황정희(13)	820	안근영	10	고등부	
790	강성관	18	청년2부	박지현(16)	821	권원수	23	청년2부	진영태(23)
791	전준수	5	청년2부	박지희(16)	822	차정주	21	고등부	김소영(21)
792	이정애	5	청년2부	박지희(16)	823	이준영	17	고등부	이정희(17)
793	전진수	5	청년부	박지희(16)	824	이인애	17	고등부	김소영(22)
794	황한민	8	초등부	권연숙(16)	825	김정애	4	중등1부	임정희(4)
795	황한민	8	초등부	최미정(16)	826	신민정	16	고등부	양승준(16)
796	이소희	14	청년1부		827	최희진	1	고등부	
797	한민준	2	소영부	이혜순(14)	828	박지현	1	청년1부	
798	김정희	25	외국부	황정희(13)	829	윤유숙	5	청년3부	조옥희(5)
799	윤지영	17	청년1부	윤유숙(16)	830	김유영	4	청년2부	이영희(4)
800	정영태	12	청년1부	윤유숙(16)	831	왕인영	4	청년2부	왕영희(4)
801	김정민	21	청년1부	배만수(23)	832	안지혜	5	청년1부	오영희(5)
802	김정민	9	청년1부	하정준(14)	833	성낙원	17	청년3부	성영준(17)
803	조희진	9	청년3부	이민숙(10)	834	유영미	1	청년1부	
804	전영숙	19	청년1부	김영준(22)	835	이유숙	5	대학부	이영애(4)
805	김정애	19	고등부	김영준(22)	836	문환주	7	청년2부	왕영희(7)
806	김지혜	19	고등부	김영준(22)	837	박예민	2	청년2부	김영희(2)

(편집국)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14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결혼

1. 이동현 군(이흥호 집사·전축순 권사의 아들, 19교구)과 김한나 양(강산만 집사·송교숙 집사의 딸, 타교) / 17일 (토) 13:00, 드림교회 3층 비전홀

별세

1. 장 근 성도(이은영 성도의 남편, 19교구 봉천3구역) / 4월 29일 별세, 5월 1일 장례
2. 조순태 타교성도(김기복 집사의 모친·박순영 집사의 장모, 12교구 용두구역) / 3일 별세, 5일 장례

충현기도원 축복적인 모임

1. 모임부분: 시당 주일성경 읽하실 분
2. 자 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성분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처: 김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031-766-5425)

◆소망부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18일(다음 주일) 12:15~13:00
장 소: 갈릴리움

◆11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18일(다음 주일) 14:00~15:00
장 소: 제1교육관 영어부실

◆13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18일(다음 주일) 14:00~15:10
장 소: 복지관 지하1층(사망부실)

◆22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18일(다음 주일) 13:50~15:10
장 소: 제1교육관 301호

◆권사 주일 찬양집회

일 시: 4월 6일(주일)~6월 29일(주일) 15:10
장 소: 제1교육관 307호

◆안수집사 주일 찬양집회

일 시: 3월 31일(주일)~5월 18일(주일) 15:20
장 소: 제1교육관 407호

2008년 제8차 CMTC 순례
(교구과정: 3주만, 장소: 갈릴리움)

●CMTC 순교복자(2)		5월 11일(오늘)
시 간		
18:10~19:00	제3강 종교 권력관계 사제, 선교사 연구사례	
19:10~19:30	제4강 순교 성양과정	
●CMTC 직무훈련: 5월 17일(토) 09:00~12:00 갈릴리움		

충현복지관 직원(교동역) 모임

1. 모임부분: 봉공성(미화직), 만 55세 미만자 세교인, 미화강원 3년 이상인 자
2.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류제출처: 충현복지관 총무팀 ☎564-4885(☎ 104)

새벽기도회 답답 (5/12~5/18)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장승규	하종철/윤해균	안지현/공석생	정충신/양요희	양재용/문정현	이희석/최문실	김인환/전은희
설 교 본 문	막 4:30-32	렘 22:20-30	렘 23:1-8	렘 23:9-17	렘 23:18-32	렘 23:33-40	렘 24:1-10

예배 담당 (5/14~5/18)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5/14	수요 I	어머니의 믿음 (답후 1:3-5) 김성관 목사	유재현 이현진	예수 네 달기 원하네(호산나 찬양대)
5/14	수요 II	자녀존신을 버리고 (행 14:8-18) 강호성 목사	박용원 오해욱	예수 인도하세(실로암 찬양대)
5/16	금요일예배	김성관 목사	황진섭	예루살렘 찬양대 / 초등부 중창단 / 소프라노 김관미
5/18	주일 I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행 4:31-35) 양태선 목사	강현철 이 훈	《예배 전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외 / 불문 자복하!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나의 죄를 회개 하서 외 / 할렘루 제2성 찬양단(지도: 정경호) 내 영혼의 그옥하 깊은데서 외 / 비올라 이집트비행 오케스트라) 갈보리산 위에 외 / 소프라노 이은주(할렘루가 찬양대 솔로리스트) 가브리엘 혼성중창단 / 안수집사 찬양대 / 17교구
5/18	주일 II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행 4:31-35) 여극근 목사	이희석 김연태	
5/18	주일 III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행 4:31-35) 김성관 목사	김인환 이세영	
5/18	주일 IV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행 4:31-35) 정충신 목사	이재영 배준식	
5/18	주일 V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행 4:31-35) 김철규 목사	탁정원 박상대	
5/18	주일찬양	영적인 추수 (요 4:35-38) 김성관 목사	하종철 임인수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주요 예배	오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오후 5:00	본 당
	I.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주요 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만민알출발
금요일예배	저녁 11:00	금요일찬양회 후 만민알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등,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스페인어, 카탈로냐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Chinese, Tha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207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청년 4부	오후 3:10	대 바 나 홀
소 망 부	오후 12:15	칼 빌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호
예배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타 교 부	(화) 오전 8:30~9:30 (금) 저녁 7:00~7:30	선교관 1층
제자교육장부	오후 12:15	대 바 나 홀
새한헌이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5월 충현 기도원의 창

1. 교회의 방패와 삼갈(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3.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4.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렘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신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5.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일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6.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두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일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7. 충현의 재단(유자·토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되만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달 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분당 외벽식재 보수가 조기에 진행되게 하소서.
8. 파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4. 6.-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령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 부목사	
노영환 총회이사	이 훈 제1교구장	김종구 제2교구장	이창호 제3교구장
김정남 제4교구장	임두원 제5교구장	김종훈 제6교구장	차신득 제7교구장
김대환 제8교구장	한승규 제9교구장	한승규 제10교구장	장 훈 제11교구장
김대환 제12교구장	한승규 제13교구장	한승규 제14교구장	장 훈 제15교구장
한승규 제16교구장	한승규 제17교구장	한승규 제18교구장	장 훈 제19교구장
한승규 제20교구장	한승규 제21교구장	한승규 제22교구장	장 훈 제23교구장
한승규 제24교구장	한승규 제25교구장	한승규 제26교구장	장 훈 제27교구장
한승규 제28교구장	한승규 제29교구장	한승규 제30교구장	장 훈 제31교구장
한승규 제32교구장	한승규 제33교구장	한승규 제34교구장	장 훈 제35교구장
한승규 제36교구장	한승규 제37교구장	한승규 제38교구장	장 훈 제39교구장
한승규 제40교구장	한승규 제41교구장	한승규 제42교구장	장 훈 제43교구장
한승규 제44교구장	한승규 제45교구장	한승규 제46교구장	장 훈 제47교구장
한승규 제48교구장	한승규 제49교구장	한승규 제50교구장	장 훈 제51교구장
한승규 제52교구장	한승규 제53교구장	한승규 제54교구장	장 훈 제55교구장
한승규 제56교구장	한승규 제57교구장	한승규 제58교구장	장 훈 제59교구장
한승규 제60교구장	한승규 제61교구장	한승규 제62교구장	장 훈 제63교구장
한승규 제64교구장	한승규 제65교구장	한승규 제66교구장	장 훈 제67교구장
한승규 제68교구장	한승규 제69교구장	한승규 제70교구장	장 훈 제71교구장
한승규 제72교구장	한승규 제73교구장	한승규 제74교구장	장 훈 제75교구장
한승규 제76교구장	한승규 제77교구장	한승규 제78교구장	장 훈 제79교구장
한승규 제80교구장	한승규 제81교구장	한승규 제82교구장	장 훈 제83교구장
한승규 제84교구장	한승규 제85교구장	한승규 제86교구장	장 훈 제87교구장
한승규 제88교구장	한승규 제89교구장	한승규 제90교구장	장 훈 제91교구장
한승규 제92교구장	한승규 제93교구장	한승규 제94교구장	장 훈 제95교구장
한승규 제96교구장	한승규 제97교구장	한승규 제98교구장	장 훈 제99교구장
한승규 제100교구장	한승규 제101교구장	한승규 제102교구장	장 훈 제103교구장
한승규 제104교구장	한승규 제105교구장	한승규 제106교구장	장 훈 제107교구장
한승규 제108교구장	한승규 제109교구장	한승규 제110교구장	장 훈 제111교구장
한승규 제112교구장	한승규 제113교구장	한승규 제114교구장	장 훈 제115교구장
한승규 제116교구장	한승규 제117교구장	한승규 제118교구장	장 훈 제119교구장
한승규 제120교구장	한승규 제121교구장	한승규 제122교구장	장 훈 제123교구장
한승규 제124교구장	한승규 제125교구장	한승규 제126교구장	장 훈 제127교구장
한승규 제128교구장	한승규 제129교구장	한승규 제130교구장	장 훈 제131교구장
한승규 제132교구장	한승규 제133교구장	한승규 제134교구장	장 훈 제135교구장
한승규 제136교구장	한승규 제137교구장	한승규 제138교구장	장 훈 제139교구장
한승규 제140교구장	한승규 제141교구장	한승규 제142교구장	장 훈 제143교구장
한승규 제144교구장	한승규 제145교구장	한승규 제146교구장	장 훈 제147교구장
한승규 제148교구장	한승규 제149교구장	한승규 제150교구장	장 훈 제151교구장
한승규 제152교구장	한승규 제153교구장	한승규 제154교구장	장 훈 제155교구장
한승규 제156교구장	한승규 제157교구장	한승규 제158교구장	장 훈 제159교구장
한승규 제160교구장	한승규 제161교구장	한승규 제162교구장	장 훈 제163교구장
한승규 제164교구장	한승규 제165교구장	한승규 제166교구장	장 훈 제167교구장
한승규 제168교구장	한승규 제169교구장	한승규 제170교구장	장 훈 제171교구장
한승규 제172교구장	한승규 제173교구장	한승규 제174교구장	장 훈 제175교구장
한승규 제176교구장	한승규 제177교구장	한승규 제178교구장	장 훈 제179교구장
한승규 제180교구장	한승규 제181교구장	한승규 제182교구장	장 훈 제183교구장
한승규 제184교구장	한승규 제185교구장	한승규 제186교구장	장 훈 제187교구장
한승규 제188교구장	한승규 제189교구장	한승규 제190교구장	장 훈 제191교구장
한승규 제192교구장	한승규 제193교구장	한승규 제194교구장	장 훈 제195교구장
한승규 제196교구장	한승규 제197교구장	한승규 제198교구장	장 훈 제199교구장
한승규 제200교구장	한승규 제201교구장	한승규 제202교구장	장 훈 제203교구장
한승규 제204교구장	한승규 제205교구장	한승규 제206교구장	장 훈 제207교구장
한승규 제208교구장	한승규 제209교구장	한승규 제210교구장	장 훈 제211교구장
한승규 제212교구장	한승규 제213교구장	한승규 제214교구장	장 훈 제215교구장
한승규 제216교구장	한승규 제217교구장	한승규 제218교구장	장 훈 제219교구장
한승규 제220교구장	한승규 제221교구장	한승규 제222교구장	장 훈 제223교구장
한승규 제224교구장	한승규 제225교구장	한승규 제226교구장	장 훈 제227교구장
한승규 제228교구장	한승규 제229교구장	한승규 제230교구장	장 훈 제231교구장
한승규 제232교구장	한승규 제233교구장	한승규 제234교구장	장 훈 제235교구장
한승규 제236교구장	한승규 제237교구장	한승규 제238교구장	장 훈 제239교구장
한승규 제240교구장	한승규 제241교구장	한승규 제242교구장	장 훈 제243교구장
한승규 제244교구장	한승규 제245교구장	한승규 제246교구장	장 훈 제247교구장
한승규 제248교구장	한승규 제249교구장	한승규 제250교구장	장 훈 제251교구장

- 전담지휘자 서순선 김현선
■ 전담지휘자 김현선
■ 전담지휘자 장연희 노은영
■ 선교사 송요한